

당목과 옥양목

찌는 듯한 더운 여름에 입는 의복으로는 청량감이 요구된다. 겉으로 보기에도 산뜻한 감이 있어야 한다. 산뜻하게 보이는 것으로 단순한 표정을 한 얇은 론(lawn), 옥양목(셔팅, shirting이라고 하며 주로 경위사에 카드 20's 단사를 사용하고, 경위사의 밀도가 인치당 68을 정도인 것), 당목(시팅, sheeting이라고 하며 주로 경위사에 카드 20's 단사를 사용하고, 경위사의 밀도가 인치당 60을 정도인 것) 등의 단사직물 옷감이 있다.

단순한 표정이라 함은 그다지 요철감이 없는 단순한 직물구조를 가진 원단을 말한다. 대표적인 직물로 면 평직물을 들 수 있다. 대체적으로 같은 굵기의 실을 경위사에 같은 올 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직물을 “균형이 잡혔다”고 한다. 옷감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실용적이다.

론(lawn : 주로 경위사에 코우머 60's 단사를 사용하고, 경위사의 밀도가 인치당 90을 정도인 것)은 가늘고 균제한 굵기의 실을 많이 사용하여 짠 것이다. 원단의 구조는 균일하고 치밀하며 짜임새가 확실하게 보이고 표면은 광택이 있으며 얇은 천이면서도 드레이프성이 우수하다.

가늘고 균제한 실은 가늘고 긴 양질의 면섬유를 잘 빗질하여 방적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하여 만든 실을 코머사(combed yarn, 정소면사)라고 한다. 고급품질의 실이다. 섬유장이 짧은 면으로 짠 것이 카드사(carded yarn, 소면사)이다. 시팅과 셔팅은 카드사를 사용한다. 천의 표면에 잔털이 있어 광택은 거의 없으며, 볼륨감이 느껴지는 옷감이다. 표면의 감촉이 고운

순서로는 론, 옥양목, 시팅의 순서이고 얇은 순서도 같다. 론이나 옥양목은 얇은 옷감이다. 론에는 투과해 보이는 감이 있는 얇은 론과 바닥이 치밀하고 두꺼운 론이 있다.

섬유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으로써 사람에게 친숙한 면은 주로 셔츠, 블라우스, 내의 등 폭넓은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튼 패션을 여러 가지 형태로 즐길 수가 있다. 고급면인 장섬유면은 섬유가 3.5~6cm로 길고 가늘어 광택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60´s 이상의 가는 실을 사용하여, 론(lawn), 보일(voile), 고급 브로드클로스(broadcloth) 등의 얇은 직물을 만들고 있다. 코튼의 대부분은 중급면이다. 섬유의 길이는 2.5~3cm, 30~50´s로써 실용적인 면직물로 하고 있다. 저급면인 단섬유면은 섬유의 길이가 2.5cm 이하로 짧지만 굵고 탄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s 이하의 굵은 실을 사용하여 타월, 슈트, 이불용 면에 이용한다. 역시 방적으로부터 봉제에 이르기까지 면 100%에 대하여는 코튼마크(Pure Cotton)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면직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대표적인 면직물

옥양목(shirting)	평직물의 중변수를 사용한 직물 (시트, 에이프런 등)
포플린(poplin)	횡으로 가는 이랑이 있는 평직물 (셔츠, 블라우스 등)
론(lawn)	가는 실을 사용한 얇은 평직물 (여름용 여성, 아동복 등)
옥스퍼드(oxford)	경사, 위사 모두 2올씩 인전한 평직물 (커터 셔츠 등)
보일(voile)	강연사를 사용한 밀도가 성긴 평직물 (여름용 여성, 아동복 등)

타사(tasar)	횡 이랑이 있는 평직물 (유니폼, 코트 등)
면크레이프(crepe)	천의 면에 곱슬주름을 나타낸 평직물 (잠옷 등)
면개버딘(gabardine)	각도가 급한 능선이 있는 치밀하고 튼튼한 직물 (코트 등)
태닝(드릴:drill)	태번수를 사용한 능직물 (워킹웨어 등)
데님(denim)	두꺼운 후직물 (블루진, 재킷 등)
피케(pique)	종으로 이랑이 나타나고 있는 이중직물 (여름용 코트, 블라우스)
다마스크(damask)	문직물 (테이블 클로스, 냅킨 등)
코듀로이(corduroy)	종방향으로 모우 이랑이 나란히 하고 있는 직물 (팬츠 등)
벨벳(velveteen)	침모직물 (추동용의 캐주얼웨어 등)
레노클로스 (lenocloth)	엷힘직 (원피스, 커튼 등)
봉소(honeycomb)직	부사를 4각형으로 구성하여 벌집모양의 요철을 나타나 게 짠 직물 (슈트 등)
셰이커(shaker)	세로 줄무늬 품의 물결모양의 요철을 나타낸 것 (파자마 등)
코드(corded)직	경사 중에 스트라이프상으로 굵은 연사를 섞은 평직물 (여름용 신사슈트)
샴브레이(chambray)	경사에 염색사, 위사에 표백사를 사용한 평직물 (블라우스 등)
강엄(gingham)	줄무늬, 격자무늬의 평직물 (캐주얼한 원피스 등)
도비(dobby)직	가는 무늬가 있는 직물 (커터 셔츠 등)

자카드(jacquard)직 자카드 직기에 의한 섬세한 문직물 (일본 옷, 모포 등)

* 옥양목(玉洋木, calico): 평직으로 짜서 표백한 면직물의 하나.

무명실로 너비가 넓고 곱게 짠 천으로 얇고 색깔이 매우 희며, 일반적으로 날염해서 침구나 조화(造花)에 많이 사용된다. 주로 인도 등지에서 생산되어 영국 등지로 수출되었다. 영국에서는 17세기부터 동인도회사를 통하여 인도 산 면포를 다량 수입해 들어 면직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원래 캘리코(calico)라 함은 캘리컷(calicut : 인도 남서부 케랄라주 코지코드의 옛 지명)에서 생산되는 면포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인도산 면포의 일종을 지칭하는 영국말로 사용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항 이후 청(淸)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영국에서 가공된 것을 수입해 들어왔다. 이 세련된 세면포(細綿布)를 서양포(西洋布) 혹은 양포(洋布)라고도 하였는데, 표백가공된 상태가 옥처럼 깨끗한 양포라고 하여 옥양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옥양목에 수요가 몰리게 되자, 우리 나라 농가에서 생산하던 재래의 무명베는 이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요즘은 옛날보다 올이 성글게 나오며, 주로 옥양목보다 품질이 낮은 것을 옥당목(玉唐木)이라고 한다.